



미국 시장의 보험테크(Insurance-tech) 스타트업 동향과 시사점

이아름 연구원

■ 최근 미국 핀테크(Fintech)¹⁾ 시장 중 보험테크(Insurance-tech)²⁾ 스타트업(startup)³⁾에 대한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⁴⁾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핀테크는 기술 진화⁵⁾, 금융소비자 특성 변화⁶⁾, 전자결제 증가⁷⁾, 금융산업 환경 악화⁸⁾, 정부의 정책적 지원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¹⁰⁾
- 핀테크 활성화로 금융회사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은행 및 증권, 보험 서비스 등 IT기반 서비스가 확대됨.

〈그림 1〉 미국 시장의 보험테크 투자 추이 (2010년~2015년 5월)



자료: CB Insights.

- 1)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금융거래의 구조, 제공방식, 기법 등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함.
- 2)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임.
- 3)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음.
- 4) 고도의 기술력과 잠재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미흡하여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자분을 뜻함.
- 5) 인터넷, 핸드폰, 소셜미디어 등이 일상화됨.
- 6) 금융 디지털소비자들이 등장함.
- 7)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확대되고 비대면 지급결제가 확산됨.
- 8) 은행은 마진이 축소되고 증권은 중개활동이 감소하는 등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신규 수익원 창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
- 9)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임.
- 10) 황석규 외(2015), 「핀테크 변화의 서막인가? 착산 속의 태풍인가」, Industry Issue Report, 교보증권.

■ 미국의 경우 2010년 승인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¹¹⁾이 건강보험 관련 보험회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반수의 보험테크 스타트업은 건강보험 관련 상품¹²⁾에 주력하고 있음.

- PPACA는 소위 오바마케어법으로 일컬어지며, 이 법의 실시로 최소한 10가지 기본의료서비스¹³⁾ 제공 및 전 국민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보험계약 건수 증가 및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해 건강 보험 관련 보험회사 수익이 향상됨.
- 이에 따라 투자회사는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건강보험 관련 IT기반 서비스 증가와 더불어 건강 보험회사에 대한 신사업 투자 기회 확대로 보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 보험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금액은 2015년 1월~5월 8억 3,15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4년 5억 5,650만 달러를 상회함.
 - 2010년 20개 미만이었던 미국 보험테크 투자회사가 현재 290개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지역 별로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위치한 회사가 대부분임.

■ 세계적으로 보험산업에서의 핀테크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국내 보험회사도 새로운 IT기술과 건강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 기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도 보험회사의 규제완화와 지원에 힘써야 함.

-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08년 9.2억 달러에서 2013년 29.7억 달러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¹⁴⁾, 미국을 비롯해 영국에서도 보험테크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보험테크는 상품개발 단계부터 상품판매 및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보험산업 전반의 사업방식 변화를 촉발할 것이며,¹⁵⁾ 이에 따라 보험테크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CB Insights 등)

11)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약자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 정식 명칭임.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즉, 미국 3,200만 명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 중산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정책임.

12) 2010년 초반부터 보험테크 스타트업 중 56%는 건강보험 관련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13) 외래 진료, 응급 서비스, 입원, 모자건강관리, 정신건강/약물중독치료 및 재활치료, 처방약, 재활/생활서비스/의료기기, 각종 검사, 질병 예방 관리, 소아관리서비스(치아 및 시력관리 포함) 등임.

14) Accenture, CB Insights 자료.

15) 황인창(2015), 「국내 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KIRI Weekly, 보험연구원.